

전국 태권 꿈나무 '빛고을'서 금빛 발차기 도전

제26회 5·18 전국태권도대회

14~21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중·고교생 2346명... 역대 최다 참가 편급 등 11체급 토너먼트로 진행

전국의 태권도 꿈나무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앞두고 '빛고을' 광주에 모여 금빛 발차기에 도전한다.

제26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교 태권도대회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 광주시, 5·18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779명, 남중부 827명, 여고부 340명, 여중부 400명 등 역대 최다인 2346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광주지역에서는 남고부 27명, 남중부 37명, 여고부 14명, 여중부 22명 등 모두 100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 광주지역 출전선수 가운데 유력한 우승 후보는 2023년 대한태권도



제26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교 태권도대회가 오는 14~21일까지 8일 동안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25회 대회 경기 장면.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플라이급 1위 김건웅(3년·상무중)과 2023년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밴텀급 1위 이상민(3년·상무중) 등이 꼽힌다.

올해 제주평화기대회 라이트급 1위 최진영(3년·상무중)과 같은 대회 2위 및 2023년 세계카뎃선수권대회(레바논) 미들급 2위 김근우(3년·문성중)도 눈여겨

볼 기대준다.

대회는 편급과 플라이급, 페더급 등 11체급(고등부 10체급, 중등부 11체급)으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로 치러지며, 전종별 전자동 전자호구(KP&P) 및 전자머리보호대를 사용한다.

경기시간은 1분30초씩 3회전으로 열린다. 중간 휴식시간으로 30초가 주어지며,

3전 다승제 방식이 적용된다.

개인 체급별 1, 2, 3위에게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며, 각 부별 최다득점자(최우수선수)에게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및 트로피가 주어진다.

부별 종합우승팀 지도자에게도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트로피가 수여된다. 부별 단체우승팀 및 2, 3위 팀, 그리고 감투상과 장려상 등 단체시상도 이뤄진다.

차기 대한민국을 대표할 태권도 유망주들이 총출동해 '민주·인권·평화'의 5·18 정신을 계승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인 만큼 태권도 꿈나무 발굴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태권도협회는 이번 대회에 2300여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내수 진작 등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3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오월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광주와 호남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개회식 식후행사

로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 70여명이 참가해 '빛과 그림자 - 태권도의 힘'이라는 주제로 희망 광주 공연을 할 예정이다.

총 4막으로 펼쳐지는 공연은 1막 어둠의 시작, 2막 고통의 연속, 3막 극복의 길, 4막 희망의 빛 등을 주제로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심각성을 전달하는 동시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게 된다. 관객들에게 학교폭력이 미치는 영향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생생하게 보여줘 학교폭력 예방과 극복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석광주시태권도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1980년 5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위해 군사독재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대회이자 올해로 26회째 '광주정신'과 태권도를 결합해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라며 "8일 동안 열리는 태권도대회를 통해 광주정신이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마음속 깊이 각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월간 10홈런-10도루' KIA 김도영, MVP



기자단 투표 30표 중 23표



KBO 리그 최초의 월간 10홈런-10도루 주인공이 된 '호랑이군단'의 미래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사진)이 3·4월 월간 MVP에 등극했다. 김도영은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 득표로 맹활약을 입증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김도영이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3·4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김도영은 기자단 투표 30표 중 23표(76.7%), 팬 투표 44만8880표 중 23만6767표(52.7%)로 총점 64.71을 기록하며 최정(SSG랜더스·총점 15.16)을 압도했다.

김도영은 3월부터 4월까지 31경기에 출장해 득점과 장타율 2위, 안타와 홈런 3위, OPS(출루율+장타율)와 타점 4위 등 타격 지표 전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KIA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다.

김도영은 3·4월 월간 타율 0.338(130타수 44안타)로 맹타를 휘둘렀다. 특히 10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는 동시에 14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KBO 리그 최초의 월간 10홈런-10도루의 주인공이 됐

다. 또 장타율이 0.638, 출루율이 0.380으로 OPS가 1.018에 육박하며 26타점과 29득점을 생산했다.

또 지난 4월9일 광주 LG전에서 5타수 4안타로 방망이를 예열한 것을 시작으로 4월30일 광주 KT전에서 4타수 2안타까지 19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무서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김도영은 이 기록을 지난 1일 광주 KT전까지 이어가며 2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이는 최원준(23경기)과 이종범, 장성호(이상 22경기), 이순철(21경기)에 이어 구단 연속 안타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KIA 선수의 월간 MVP 수상은 지난 2022년 7월 외야수 이장진 이후 2년 만이다.

KIA는 이번 월간 MVP 후보에서 집안 싸움을 펼쳤는데 김도영이 제임스 네일(기자단 4표·팬 1만6429표·총점 8.50)을 크게 앞질렀다.

월간 MVP에 등극한 김도영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트로피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모교인 광주동성중에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김도영 명의의 기부금 200만원이 전달된다. **한규빈 기자**

광주 수피아여중, 연맹회장기 농구대회 3연패

춘계연맹전 이어 두 번째 우승 김담희 MVP 등 개인 4관왕

광주 수피아여중 여자농구팀이 2024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대회 3연패와 함께 올시즌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수피아여중은 9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중부 결승에서 수원제일중을 87-61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수피아여중은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전승 우승과 함께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또 지난 3월 제61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우승에 이어 올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수피아여중은 B조 예선에서 송의여중(74-28 승)과 청주여중(70-35 승), 인성여중(85-41 승)을 연파, 3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8강에 진출했다.

8강서 마산여중을 67-39, 준결승서 청솔중을 90-36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수원제일중을 상대로 1쿼터부터 주도권을 쥐며 30-9로 앞서 나갔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선수단이 9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여중부 결승에서 수원제일중을 87-61로 꺾고 우승한 뒤 우승 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피아여중 농구팀 제공**

다. 2쿼터(25-15)와 3쿼터(21-11)에서도 거세게 몰아붙이며 76-35로 승기를 잡은 수피아여중은 4쿼터에서 상대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26점 차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가드 송지연(2년·26득점)과 포워드 임세운(3년·23득점), 가드 겸 포워드 김담희(3년·20점) 등 세 선수가 20점 이상의 득점포를 과시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끈 김담희는 리

바운드상·어시스트상·수비상·최우수상(MVP)을 수상, 개인 4관왕을 차지했다. 김담희는 이번 대회 6경기에서 총 111득점(경기당 평균 18.5점), 110리바운드(평균 18.3개), 35어시스트, 21스틸, 18블록슛을 기록했다.

임세운은 6경기에서 총 131득점(평균 21.8점)을 성공시키며 득점상을 수상했다. 윤세나 감독과 이선영 코치는 각각 지도상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

안세영 "무릎 통증 적응 중... I CAN DO IT!"

광주체고 출신 '셔틀록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이 지난해 10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이후 이어지고 있는 무릎 부상 여파에 대해 단시간에 좋아질 수 없어 2024 파리 올림픽에 맞춰 컨디션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은 지난 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상과 관련해 아직도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하지 않은 사실이 언급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안게임 직후 2-6주 재



활 후 복귀할 수 있다는 진단과 달리 통증이 줄지 않아 지난해 12월 다른 병원을 방문했다"며 "슬개관 부분 파열이 처음 진단과 다르게 짧은 시간 내 좋아질 수 없으며

올림픽까지 최대한 상태를 유지하고 통증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4월29일~5월5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대회(우버컵)에서도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조별리그와 8강에 출전했지만 준결승에는 아예 나서지 못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며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부상 걱정보다는 응원하고 기다려 주시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규빈 기자**